

<서 평>

## 역사지리학자가 읽은 Assimilating Seoul (서울 동화시키기)

- Todd A. Henry, 2014 *Assimilating Seoul: Japanese Rule and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Colonial Korea 1910-194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김 종 근 \*

- 1. 머리말
- 2. 책의 구성과 내용
- 3. 책의 시사점과 한계점
- 4. 맺음말

### 1. 머리말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국 학계, 나아가 한국 국민의 관심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며, 특히 일본의 우경화가 심해질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 강도가 세어지고 있다. 1945년 광복이후 일제강점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일본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고, 대처해 나아가야 할까? 1980~90년대까지는 이러한 일제강점기에 대해 일제가 우리의 근대화 기회를 강탈하고,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왔다는 방식의 인식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20세기 말부터는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부터 후기 구조주의를 포함한 포스트 모던적인 철학 사조에 바탕을 둔 ‘식민지 근대성론’ 등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관심영역의 경우도 점차 일상사, 생활사, 지역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 분야의 확대와 새로운 분석은 비록 민족감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학계의 건강함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드 헨리(Todd A. Henry) 교수의 ‘서울 동화시키기’ 책자는 기본적으로 21세기에 들어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후기 구조주의를 포함한 포스트모던적인 철학사조를 바탕으로 일상사, 지역사의 형태로 일제 강점기를 읽어내고 있다.

본 서평에서는 이러한 토드 헨리 교수의 책자를 간단히 살피고, 이후 이 책이 학계에 던져주는 시사점과 의미, 그리고 서평자가 파악한 한계점을 논하고자 한다.

## 2.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자는 아래와 같이 총 7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동화와 공간: 일본 지배의 민족지학
케이조(京城) 건설하기: 식민지 수도의 불평등한 공간들
정신적 동화: 남산의 신도 신사들과 축제행사
물질적 동화: 경복궁터에서 열린 식민지 박람회들
시민적 동화: 케이조 마을들에서의 위생생활
제국신민화: 전시기 도시의 봉과하는 공간들
맺음말: 제국의 멸망 이후, 후기 식민주의적 서울 공공 공간의 재구성

서론에서는 이 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두 가지 주제어, 즉 ‘동화’ 와 케이조(京城)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두주제가 만나는 지점인 남산의 조선신궁이 1925년에 완공되는 것에 주목하는 저자는 일본제국의 ‘쇼케이스’인 케이조(京城)를 대상으로 일본제국의 핵심적인 정책이었던 ‘동화’를 읽어낼 것을 천명한다. 비록 실제는 성공하지 못했고,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던 바였지만, ‘동화’는 일본제국주의 식민정부의 특성을 나타내는 점이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책자의 핵심 키워드로 잡았음을 밝힌다. 특히 기준의 동화

정책연구들이 ‘공간’에 초점을 두지 않았던 것에 착안해 신사(神社)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지배자의 행위와 피지배자의 저항에 주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주제인 ‘동화’는 좀 더 세분화되어서 설명되는데, 토드 헨리 교수는 정신적, 물질적, 시민적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하며, 동시에 이 책의 본문인 2장, 3장, 4장에서 각각, 신사(神社), 박람회(공진회), 위생사업 등의 사례 분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아울러서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식민지 통치성(colonial governmentality)’이다. 한국에서도 20여 년 전부터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미셸 푸코의 근대성 논의가 소개되고, 적용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용어가 규율권력, 생체권력, 그리고 통치성일 것이다. 근대 권력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 용어들은 근대화된 제국에서 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도 나타난 것이 세계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파악된 바 있으며, 토드 헨리 교수도 이러한 연구들에 영향을 받아 ‘과도하면서도 방지하는’ 특성을 지닌 ‘식민지 통치성’을 이 책 전반에서 파악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제국 본국과 식민지, 근대성과 식민지성, 포함과 배제” 등의 이분법들이 구성해낸 일련의 스펙트럼들에 내재하는 모순 및 긴장관계에 주목하는 방식이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서 연구 방식에 있어서도 토드 헨리 교수는 기존의 ‘top-down’ 방식과 다른 아래로부터(bottom-up)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을 추구함을 밝힌다.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은 민족, 계급(계층), 성, 세대 간 구분이 존재한 식민지 사회의 모습을 모두 바라보고자 했다는 것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더불어 ‘접촉지대(contact zone)’이라는 ‘동화와 관련된 정기적인 축제 및 행사, 그리고 일상의 가혹한 일제의 지배를 겪는 공간’에서 읽고자 했다. 아울러 흥미로운 점은 시기구분을 기준의 방식에서 벗어나 1915년, 1925년 1937년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간적 배경이 되는 제1장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한양/황성을 식민수도로 재편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1920년대 도시 계획 운동에서 언급된 근대적 도시계획의 논의와, 실제 도시계획의 실천 당시 나타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 도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장에서 책 전체

에 나타나는 ‘동화’의 핵심적인 비유인 ‘동맥’과 ‘미세혈관’의 비유가 나타나 것인데, ‘동맥’으로 비유되는 대로(大路)는 재편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한 골목들인 ‘미세혈관’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음이 다양한 지도 삽화들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소위 ‘남촌’에 비해 ‘북촌’이 도로 시설에 있어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밝혔다.

제2장에서는 정신적인 ‘동화’라는 점에서 신사(神社)가 일본황실에 대한 충성심을 심는 데 활용되었는가에 대해 살피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1937년의 강요된 신사참배가 이전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 글에서는 식민지 신도(神道)가 조선인을 차별하던 긴장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더불어 경성신사와 조선신궁 간의 긴장 및 협력 관계가 잘 그려지고 있다. 아울러 신사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이루어진 행렬에 나타난 민족적, 계급적, 성적 차별의 양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흥미로운 해석은 일제강점 초기에는 국한된 지역에서 대다수의 일본인만이 참가하던 경성 신사 제전이 1930년대에 들어서는 조선인 구역을 본격적으로 행렬이 지나가고, 다수의 조선인들도 참가하는 행사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수동적인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지점이다.

‘물질적 동화’로 지칭된 제3장에서는 케이조에서 열린 1907년과, 1915년, 그리고 1929년의 박람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15년과 1929년 박람회는 일제가 과거 조선왕조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을 훼철하고 이곳을 식민지 근대적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박람회장으로 이용하였는데, 토드 헨리 교수는 이 행사에 대해 다수의 조선인들은 유흥의 기회로만 인식함으로서 의도가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4장은 ‘시민적 동화’라 명명되어 위생사업을 분석한 장이다. 앞선 두 장이 보다 구체적인 장소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 장은 다소간 추상적인 공공의 장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일제강점기 까지 케이조는 ‘똥의 수도’, ‘병든 도시’로 비유되면서 위생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었다. 병, 특히 전염병은 민족을 경계로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조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인들의 위생상태는 개선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생상태를 개선하는 형태는 ‘동상이몽’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인식과 개선방식이 명

백히 달랐고, 결국 경찰을 동원한 강압적인 형태의 개선방식이 선호되어 ‘동화’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2·3·4장에서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중반을 주로 다루었다면, 제5장에서는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전시기 동안의 ‘제국신민’ 만들기 형태의 ‘동화’의 모습을 분석하고 있다. 일제는 각종 이벤트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바 있고, 1930년대 말에도 여전히 이러한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책자에서는 진무천황 즉위 2600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식민지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특히 각 가정마다 신봉(神棚)을 설치하게 하고, 이세신궁 부적을 강제로 배포함으로써 ‘황국신민화’를 이루고자 한 모습은 기준의 연구에서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마지막 장인 에필로그에서는 일반적인 맷음말 형태의 내용 정리가 아닌, 광복 이후의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45년 이후 남산과 경복궁에서 행해진 대한민국정부의 일련의 반식민주의, 국민국가주의적 시설물의 설치 상황이 비판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 3. 책의 시사점과 한계점

#### 1) 시사점

본 서평자는 토드 헨리 교수의 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일제강점기 역사 연구의 세계화이다. 한국사의 경우 과거 10여 년 동안 세계화에 많은 공을 들여왔고, 다수의 연구물이 영어로 집필되거나 번역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대한 영어로 된 연구 성과들은 흔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며, 특히 서구 학자에 의한 연구물은 매우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의 발간은 한국학의 세계화에 있어 유의미한 사건이다. 이 책의 두 번째 시사점은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책이라는 점이다. 본 서평자는 역사지리학을 연구하고 있지만, 케이조라는 공간을 다루는 점에서 역사학자인 토드 헨리 교수의 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한국사연구자뿐만 아니라 역사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 종교학, 나아가 건축사 연구들에게도 이 책은 유의미한 결과물이다. 왜냐하면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최대한 흡수하여 탄생한 저작물이고, 동시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접근법이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학문 간의 장벽 또한 허물고 있는 것은 이 책의 장점이다. 세 번째로는 다수의 한국어 연구물이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다. 다수의 서구 학자들이 한국내에서 발간된 연구물에 대해 일정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책자는 기존의 서구학자들의 연구물과는 다르다. 적어도 이 책을 쓴 토드 헨리 교수는 기존의 서구학자들의 편견을 깨고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학문성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서구의 한국학 연구자들로 하여금 한국어로 된 연구 성과물을 읽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네 번째로는 이 책을 통해 도시사 및 일상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 책은 시간에 흐름에 초점을 둔 역사학자가 쓴 책이지만, 공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간과 장소’, 특히 ‘도시’를 역사연구의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는 점은 새로우면서 유의미하다.

## 2) 한계점

이 책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도시를 연구하는 지리학자의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 또한 있다. 우선 이 책은 ‘동화’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실 ‘동화’에 대한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내용, 즉 일본제국 신민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토드 헨리 교수도 단순한 ‘동화’라기 보다 ‘통합’,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 책에서 밝힘과 동시에 코마고메 타케시에 의해 이미 언급된 바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화시키기’에서는 ‘동화’와 ‘통합’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토드 헨리 교수는 ‘동화’는 사실상 실패한 기획이라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본 서평자는 ‘동화’라는 용어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키워드이기는 하나, 일제강점기 케이조에서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명백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본 서평자는 일제강점기 동안 케이조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 양상에 대해 ‘동화’라는 추상적이면서도 정치적 구호의 성격이 강한 키워드를 사용하기 보다는 ‘식민지화’나 ‘근대화’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식민지 조선의 한국인들은 서구화로 상징되던 근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고, 반면 일본으로 상징되는 식민화에 대해서는 ‘왜색’이라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거부하였다. 특히 1945년 광복 이후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지워져 나간 것은 대부분 명백히 ‘일본 고유의 것’이라 판단된 것들이었으며, ‘신사’, ‘유곽’ 등이 대표적이다. 지명에서도 이는 극명히 나타났는데, 혼마찌(本町), 메이지쵸(明治町), 코가네쵸(黃金町) 등은 모두 충무로, 명동, 을지로 등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도입된 근대적인 행정구역 시스템 및 지번부여체계는 여전히 남아서 100여 년 이상 활용되었다. ‘동화’라는 용어는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하는 정치적 용어이며, 1945년 일본제국의 폐망과 함께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용어이다. 2016년 현재까지 우리생활에 존재하는 일제강점기의 유산을 확인하는 것이 일제강점기 연구의 여러 목적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화’라는 용어를 책의 제목으로 선택하는 것은 최소한 한국인 연구자 및 일반대중에게는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두 번째로는 연구의 접근법 측면이다. 저자는 top-down 방식에서 탈피하여 서발턴의 목소리와 행위들로부터 그들의 인식을 읽어내는 bottom-up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역사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하층민들의 의식을 역사의 측면에서 의미부여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이 주된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서발턴의 행위나 의식에 미친 구조의 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기생의 경우 일제강점기 동안 권력의 주요한 활용 대상이었다. 박람회를 비롯해 각종 이벤트에 이들이 동원된 것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었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반드시 동원시켜야 하는 이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 또한 함께 살펴야 한다. 서평자의 연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기생은 ‘조합’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고, 다수가 묵인된 성매매자였다. 이러한 식민경찰의 묵인의 대가로

식민정부의 행사에 동원된 측면이 존재한다. 사회적 타자의 구성 및 활용은 근대국가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므로 ‘아래로부터의 접근’ 법뿐만 아니라 ‘위로부터의 접근’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측면은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 부분이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민족주의적인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를 한국 민족주의의 원형으로 복원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인상적이다. 그러나 저자는 본문 중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적인 담론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판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기사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만보산 사건으로 촉발된 중국인 대상 ‘배화폭동’은 민족주의적인 담론의 부정적인 측면의 극치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 동화시키기’ 책자가 포스트 구조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물임을 감안한다면, 민족주의 계열 미디어 담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활용했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역사지리학적 측면에서의 아쉬운 점이다. 우선 이 책에서는 케이조의 지리적인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예를 들어 케이조의 지리적인 범위에 대한 언급이나 지도를 활용한 설명이 없다. 일제강점기 동안 케이조는 두 번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1914년이고, 두 번째는 1936년이다. 첫 번째 개편은 기존의 한성부 행정구역의 축소 및 행정구역 시스템 변경이며, 두 번째는 행정구역의 확대 및 행정구역 명칭의 ‘일본화’로 특징 지워진다. 이 책을 읽는 독자가 경성이라는 지역에 대한 시공간적인 인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최소한 이 책에서 언급되는 지명들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 위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로 아쉬운 점은 케이조의 인구 구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케이조의 인구 구성은 1914년에서 1936년 사이에는 지배자인 일본인과 피지배자인 한국인 간의 인구 비율이 3:7 정도였고, 동시에 소수의 종국인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성은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평면적인 구도 이외에도 다양한 구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도이므로 반드시 언급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민족들의 인구 분포 양상도 설명되어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도시공간 내에서의 민족별 상호작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언급되는 ‘남촌’과 ‘북촌’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민족별 인구 분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는 케이조와 식민지 조선내 다른 도시들과의 관련성이 언급되지 않은 점이다. 케이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식민지 수위도시였고, 철도와 도로 등으로 한반도 내 여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케이조의 수위성은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기보다 더욱 강화되었고, 영향력 또한 더욱 증대되었다. 이 때문에 케이조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케이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으로 단시간 내에 확산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서울에서 발생한 3·1운동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 양상을 들 수 있다.

#### 4. 맷음말

도시사 분야는 역사학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분야이며 특히 서울지역은 연구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에 타개한 고 손정목 교수의 연구로 사실상 시작된 서울 도시사 연구는 20세기 말부터 역사학을 포함한, 건축학, 사회학, 어문학, 지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융복합적인 지역 연구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이후 한국내에서 지역 연구의 표준이 된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이 분야는 미시사, 일상사, 지역사라는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흐름과 맥을 함께 하며, 동시에 학문간 장벽,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대표적인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대한 거대 담론적이며 민족주의적인 해석이 주를 이루던 한국 학계의 분위기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해석방법론으로,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자 및 연구 방법론의 다양화, 나아가 융복합화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신사’, ‘박람회’, ‘위생사업’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케이조를 분석한 토드 헨리 교수의 저작물인 ‘서울 동화시키기’는 개념어 사용, 방법론 등에 있어 일부 한계 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이후 본격화된 식민도시 케이조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성과를 중 하나이며 포스트모던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학문분야 및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은 대표적인 저작물이다. 민족주의적 이분법을 뛰어 넘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한국내 연구자들에게 강한 지적 자극을 제공하고 있는 이 책자는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일제강점기 도시, 특히 서울(케이조)을 연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일제강점기를 이해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확립하는 과제는 토드 헨리 교수뿐만 아니라 본 서평자를 포함하는 모든 연구자들의 몫일 것이다.

주제어 : 일제강점기, 경성(keijo), 동화정책, 토드 헨리(Todd Henry), 역사지리학